

“학생회 선거 문제점 많다”

서울

선거로 인해 학생회사업 공백상태 선관위 위상약화, 진행상 혼란야기

수원

서울캠퍼스 단과대학 학생회가 23대 총학생회 선거운동 참여 등을 이유로 대거 사퇴해 학생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선거규칙상 학생회간부는 선거운동 및 선거후보자로 나올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 참여를 위한 집행부 사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로 인해 문리대학생

회는 12명의 학생회간부중 현재 3명만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정경대는 9명중 학생회장 1명을 포함 5명, 가정대는 8명중 3명이 사퇴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는 거의 모든 집행부가 사임을 손을 떼고 있다.

이에 대해 조영경(경제·3) 동아리연합회 전기획부장은 "거의 모든 회원이 선거를 이유로 사퇴

한 상태로 결산보고등 마무리작업과 평가작업, 이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 공백으로 인한 사업의 부재와 완결되지 않은 평가작업은 선거가 끝난 후 구집행부의 마무리작업과 함께 신·구 집행부 M·T등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와 총학생회 학생회 후보자들과의 이견으로 지난8일로 예정되었던 선거유세가 취소되는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중선관위와 기호1번 이재

소련 '청년대학'과 학술교류 모스크바대외도 교류 이루어질듯

본교는 지난 10일 본관중앙회의실에서 소련의 '청년대학' (Institute)과 교류협약에 조인하고 공식 자매결연을 맺었다.

조영식 총장과 게나디 고르바초프(Gennady S. Golovachev)청년대학 총장사이 체결된 교류협정서에 따르면 양교는 앞으로 △교수와 학생교환 △학술적 정보의 교환과 기타 양교에 관심있는 교환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문의 질적 고양과 학문적 협력 관계 형성에 주력하게 된다.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전철로 15분거리에 위치한 청년대학은 소련내 젊은 엘리트 교육을 전담

하는 곳으로 대학교육과 연구 중심의 대학이다.

박사과정 학생을 포함해 학생은 총 2천5백여명이며 교수는 4백여명정도가 있는 청년대학은 당 중앙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7월 학술교류협약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모스크바 대학'과도 91년 5월경 공식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청년대학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소련 및 동구권과의 학술교류가 국내 어느 대학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추진위원회 1차 회의

도서관 환경및 제반 복지문제 논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교내복지공약 마무리를 위한 '공약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심민성 부총학생회장)가 11일 오후 2시 본관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도서관 환경 및 제반 복지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서관 복지문제에는 전공 도서확충과 금서철폐, 도서관 의사수리 및 교체, 화장실 휴지설치와 각단별 복지문제는 조정대 6층 증축, 기숙사 91년 5월까지 완공 △가정대 신축건물(92년 착공, 93년 완공) △한대건물 뒤 보호방벽 설치 △의약관 사물함 교체 등을 합의했다.

반면 복지화관 건립계획문제와 도서관 마그네틱카드설치등에 합의할 수 없는 문제로 오늘 2차협상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공약추진위원회는 학교당국이 음약감상실 청정보수, 도벽, 심

재와 각단과대 복지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서관 복지문제에는 전공 도서확충과 금서철폐, 도서관 의사수리 및 교체, 화장실 휴지설치와 각단별 복지문제는 조정대 6층 증축, 기숙사 91년 5월까지 완공 △가정대 신축건물(92년 착공, 93년 완공) △한대건물 뒤 보호방벽 설치 △의약관 사물함 교체 등을 합의했다.

반면 복지화관 건립계획문제와 도서관 마그네틱카드설치등에 합의할 수 없는 문제로 오늘 2차협상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공약추진위원회는 학교당국이 음약감상실 청정보수, 도벽, 심

포니실 방문과 설치와 함께 리사이틀을 할 보수공사를 해줄것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리사이틀을 공사할 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관리과장은 '자재와 인력난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90 전국농민 '추수대동제'

노래공연·씨름대회 먹거리장터등 마련

'90전국농민 추수대동제'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주최로 본교 노천극장과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민의 노고를 전국농민의 축제를 열어줄 '90전국농민 추수대동제'는 16일, 대운동장 △노래공연(우리는 진짜 농사꾼)=17일 오후6시부터 8시까지, 노천극장, 농민공연팀·예물림·민요연구회등 참가

△전국씨름대회=17일, 대운동장, 면·군 농민회대표, 노조·대학대표 참가

△'밥이 지미어' (UR저지 집채구 공연)=17일부터 18일까지, 크라운관, 광주공공문헌사업단 '심방'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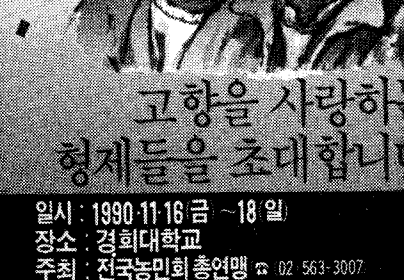
△전국풍물경연대회=18일, 대운동장, 마을·면·군 풍물패, 노조·대학풍물패 등 참가

이번 행사에 대해 권중대 전 농 의장은 "7백만 농민이 전농으로 결집력을 높여 UR, 농발대 지지와 실감정책을 위한 투쟁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는 각종 지방특산물 및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상점 50여개가 모여 '먹거리장터'를 형성하게 된다.

【해설】이번에 개최되는 '90전국농민 추수대동제'는 올해 처음으로 기획되고 치러지는 행사로 '농·학연대'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간 대학의 농촌연대는 대표적으로 농촌봉사활동과 연합집회 참석등으로 나눌 수 있었으나 농활의 경우 사후작업의 부실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하고 단순한 노력봉사의 차원에 정지되어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연합집회 참석의 경우 '뜻을 같이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추수대동제는 이전까지 농학연대의 오류를 극복하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촌활동의 후속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행사는 대학인에게 농민들과의 일체감을

으로 나눌 수 있었으나 농활의 경우 사후작업의 부실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하고 단순한 노력봉사의 차원에 정지되어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연합집회 참석의 경우 '뜻을 같이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추수대동제는 이전까지 농학연대의 오류를 극복하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촌활동의 후속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행사는 대학인에게 농민들과의 일체감을



일시: 1990.11.16 금 - 18 일
장소: 경희대학교
주최: 전국농민회총연맹 ☎ 02-563-3007

11월 민중총집결투쟁 결의대회

전대협사수, 장기집권 분쇄 및 11월 민중총집결투쟁을 위한 자주정 결의대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노천극장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심민성(무역·4) 부총학생회장의 '학생회 선거를 대중투쟁의 공간으로 총화하자'라는 제안과 '11월 민중총집결투쟁의 일정보고'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김주환(물리·4) 총학생회 사회부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자주정의 청년학도는 4천만 민중과 함께 11월 투쟁의 광장에서 민족민주운동의 선봉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집회도중에 오는 14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될 예정인 '민자당 장기집권분쇄 분쇄를 위한 청년학도의 결의'를 주제로 한 광고 기금마련을 위해 모금운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전대협사수, 장기집권 분쇄 및 11월 민중총집결투쟁을 위한 자주정 결의대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노천극장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심민성(무역·4) 부총학생회장의 '학생회 선거를 대중투쟁의 공간으로 총화하자'라는 제안과 '11월 민중총집결투쟁의 일정보고'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김주환(물리·4) 총학생회 사회부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자주정의 청년학도는 4천만 민중과 함께 11월 투쟁의 광장에서 민족민주운동의 선봉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집회도중에 오는 14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될 예정인 '민자당 장기집권분쇄 분쇄를 위한 청년학도의 결의'를 주제로 한 광고 기금마련을 위해 모금운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교수채용 논의기구'제의 수원 총학 지난8일 학교당국에 건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늘 부총장실에서 '교수채용 및 과단대 교수·학생 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 학교측과 논의를 가진다.

지난8일 학교측에 보낸 제안서에서 총학생회는 교수총원에 대해 △매년 10명내외의 교수를 채용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없는 계획의 철회 △91학년도 채용교수의 인원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교수채용에 대해서는 △과교수·학생 대표회의를 교수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기준작성 △지원자의 인격에 대한 참해보 인 정되는 것을 제외한 서류일체를 학생대표에게 공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교수세미나(공개강의) 실시 △인사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임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없을시 이의제기하고 소명자료열람 및 재심의 요청 가능등이다.

한편 과단대 교수·학생대표회의에 대해 △과별 중요사항에 대해 교수와 학생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고 학사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학과별 교수, 학생대표회의의 구성 △교수, 학생 대표회의의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집행보 장등이다.

또한 교수채용시기는 학기중으로 하며 교수채용에 관한 사항은 91학년도 상반기부터 적용할 것을 제기하였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학원자주화

투쟁의 좀더 원활한 균형을 위해 지난 31일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중앙회의를 구성하여 현재 활동중이다.

40회 아마복싱대회 우승
핸드볼, 축구도 좋은 성적 거둬

제40회 전국대학 아마복싱선수권대회 제11회 회장에 대학선수권대회 '서 본교 양기영(체과대·체육)군이 동료 조성철(체과대·체육)군을 판정승으로 눌러 패더급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또한 핸드볼팀이 지난 9일

제18회 체육부장관기 전국대학핸드볼대회' 결승전에서 단과대를 28대21로 제압했다.

한편 축구부는 지난 8일 인도 뉴델리 제46회 DCM배 축구대회'서 케르들라경 찰츠클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 5대4로 이겨 우승했다.

대학의 부재에서 생겨난 불신의 벽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그 문제라는 것은 항상 대화를 하지 않겠거나 혹은 나만의 주장을 내세우기만 하는데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된다.

▼요즘 '3개 중북과'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수원 물리학과는 학교측의 비공개적인 학사행정에 대한 서울물리학과 교수·학생들의 반발로 더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단의 수원 학생들 이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못한 '아간학과 신설계획'의 폐지를 요구하며 부총장실을 점거·농성하자 학교당국은 아간학과를 곧 폐지시켰다.

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서울 물리학과 교수·학생들이 반발했고, 학생들은 7, 8일 양일간 본관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후 부총장과 의 면담이 이루어져 학교측의 공개 사과, '서울·수원 학사행정의 완전 분리'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부총장의 공식입장이 곧 전달됐다. 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간의 불신감이 팽배해진 사실은 수원학생들이나 서울학생들이 학교측에 자신들의 의견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학과 교수 혹은 서울·수원간의 충분한 사전논의나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불씨는 학생·교수·학교당국과의 상호대화 부족일 것이

다. 되도록 어느 한쪽만의 패배를 줄여나가고 학교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나 관련자들과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해 의식의 공유와 실질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전논의를 의해 공유된 의견을 학교측에 제한하여야 하고 학교측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의 첫걸음이며 '학원발전'을 위한 '正道'일 것이다. 그리고 묻고 싶다.

서울의 물리학과 학생들과 수원의 물리학과 학생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려 했으며, 어느만큼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아무리 줄이 길더라도 끝까지 한번 짚어볼랍니다”

이웃학교의 총학생회가 아닙니다
교수들의 총학생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자주적 총학생회입니다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결코 올바른 총학생회가 건설될수 없습니다
우리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실제로' 요구되는 때 입니다

대 학 주 보 사

